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404번지 가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천리안 하이텔 나우콤/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담당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 이정운 : 795-5918)
재 목 참여연대 숙년회(熟年會) 창립총회
날 짜 1997. 4. 10. (총 10 쪽)

보 도 자 료

맑은사회 만들기 노인부대가 앞장선다! - 참여연대 숙년회(熟年會) 창립총회 -

일시 및 장소 : 1997. 4. 11. 오전 11시 종로 YMCA 대강당

1. 험난한 시대를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살려 오늘의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라져가는 우리문화를 살리고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만들어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임을 어느 곳에서든 당당하고 씩씩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인들이 나섰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 金昌國, 이하 참여연대) 회원중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모임인 숙년회(熟年會, 준비위원장 이성렬)는 4월 11일 오전 11시 종로 YMCA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참여연대의 젊은 이들을 조력함은 물론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운동, 국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윤리실천의 주체적 역할을 통해 민족정신문화계승과 윤리도덕회복에 전력하기 위해 창립하였다.
3. 숙년회는 1996년 7월 3일, 참여연대 회원 중 60세이상의 몇사람이 모여 맑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자고 결의하고 거리 홍보를 통한 회원확대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오던 중 4월 11일 창립총회를 갖게 된 것이다.
4. 숙년회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이 입시위주에서 홍익인간교육으로 전환할것을 강력하게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국가사회의 부정비리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숙년회의 힘을 모아 이를 추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전개하며, 구호에 그치고 있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노인복지의 확대를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할 것을 창립총회에 참석한 모든 회원이

함께 결의하였다.

5. 숙년회는 사업으로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사업, 회원직업중계실 운영, 효도실천 및 예절교육, 윤리도덕 회복운동 등을 전해할 계획이다.
6. 이날 창립총회는 첫째마당 기념식, 둘째마당 창립총회 셋째마당 회원친목모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숙년회 창립을 축하하여 임진택씨의 판소리 공연도 함께 진행되었다.
7. 시민운동단체내에 노인의 복지확대를 통한 노권운동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의 참여를 통해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 나선것은 참여연대 숙년회가 최초이다.

별첨자료 : 숙년회 창립취지문 1부.

숙년회 사업계획서 1부

결의문 1부

참여연대 熟年會 창립 취지문

우주 만물이 조물주에 의한 상생상극(相生相剋)의 자연법칙에 따라 이루어 졌고, 지구의 모든 것도 또한 이에 의한 음양과 오행의 조화로 이루어졌음은 고금에 이론이 없다.

우리 나라는 단군개국 이래 반만년의 역사가 찬란하게 이어지더니, 근자에 와서 한때는 외국의 노예가 되었었고, 광복 후에는 우리 민족 누가 원했는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족끼리 피를 흘리고, 아직도 서로가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니, 이것이 하늘이 내리신 재앙인지, 스스로가 지은 죄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라의 세가 날로 번창해서 올림픽도 치루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도 되었고, 국민소득이 일만불이 넘어서 선진국이 되었다니 모두 국민의 피땀이 어린 결과다.

그러나, 나무가 크면 그늘도 크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고도성장 뒤에는 후미진 곳이 있게 마련이다. 금전만능 풍조와 사치스런 사회분위기는 날로 기승을 부려 선량한 사회풍속과 정신문명을 좀먹고 있다. 온갖 비리와 범죄가 심각한 양상으로 변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진취적이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 책무를 우리들이 지고 있다.

우리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회원 중 60세 이상의 우리들은 험란한
시대를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살려 사라져 가는 우리문화를 살리고,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만들어서 후대에게 물려주어 그들이 자랑스러
운 한국인임을 어느 곳에서도 당당하고 씩씩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물려주는데 보탬이 되고자하여 熟年會의 창립을 공포한다.

1997. 4. 11.

熟年會 창립준비위원회

대표자 이 성 렬

준비위원명단 (가나다 순)

강 경 호 (남양주시)	강 태 희 (고양시)	강 호 범 (양평군)
권 동 균 (양평군)	권 태 환 (서울 종로)	김 경 식 (가평군)
김 경 호 (김포군)	김 근 식 (안성군)	김 남 숙 (인천 남구)
김 동 기 (서울 관악구)	김 석 조 (성남시)	김 유 석 (서울 관악구)
김 한 수 (양평군)	라 근 호 (충주시)	라 호 용 (서울 동작구)
박 경 식 (양평군)	박 두 석 (서울 관악구)	박 석 규 (서울 관악구)

박 우 하 (서울 관악구)	박 홍 래 (서울 강동)	백 만 재 (동두천)
백 병 현 (양평군)	변 창 우 (양주군)	서 영 수 (영등포)
신 필 재 (가평군)	안 근 배 (파주시)	안 양 하 (파주시)
오 원 석 (연천군)	오 철 하 (연천군)	왕 은 임 (서울 동대문구)
원 세 진 (여주군)	원 철 상 (연천군)	유 기 복 (평택시)
유 인 정 (인천시)	유 하 빈 (연천군)	윤 여 창 (의왕시)
이 건 우 (고양시)	이 광 수 (수원시)	이 광 학 (양평군)
이 교 성 (서울 노원구)	이 기 선 (서울 관악)	이 기 종 (평택시)
이 덕 상 (안성군)	이 동 규 (양평군)	이 문 창 (서울 종로)
이 범 룡 (서울 관악구)	이 병 관 (서울 은평구)	이 상 만 (인천시)
이 성 렬 (서울 동대문구)	이 성 윤 (연천군)	이 순 희 (서울 송파구)
이 영 선 (서울 서초구)	이 윤 길 (서울 중랑구)	이 정 렬 (서울 동대문구)
임 근 철 (서울 구로구)	임 기 현 (용인시)	전 병 하 (연천군)
전 상 범 (연천군)	전 형 기 (강화군)	정 규 택 (서울 서대문구)
조 광 해 (서울 종로)	조 상 복 (안성군)	최 두 훈 (화성군)
최 명 선 (서울 성북구)	최 병 환 (하남시)	최 일 환 (서울 은평구)
최 종 수 (서울 관악구)	한 태 성 (연천군)	황 성 (서울 서초구)
허 규 회 (광주군)	홍 순 영 (의정부시)	홍 정 옥 (서울 동대문)

이상 72명.

經 過 報 告

1. 1996. 7. 3 참여연대 회의실에서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 변호사와 이대훈 사무국장, 그리고 이성렬, 강태희, 이진우, 이운길, 최일환, 이순희, 김근식, 조상복, 이범용 등이 모여서 맑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자고 하고, 나이는 60세 이상의 남녀로 하되, 회비는 면제하기로 하고, 숙년회발기인회를 갖고 회장에는 이성렬 씨로 선임하였습니다. 박원순 사무처장은 이를 참여연대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위원회는 추인하였습니다.

2. 1996. 11. 12 2차 모임에서는 취지문과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었으나 회칙이 너무 빈약하다고 하여 보완키로 하고, 6명의 운영위원(이성렬, 이운길, 이순희, 최종수, 최일환, 박석규)을 선임하여 준비위원회로 바꾸었습니다.

3. 1997. 2. 17 3차 모임에서는 숙년회라는 명칭이 왜색이 짙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일부의 반대가 있어서 장시간 토론 끝에 다수결의 원칙을 피하고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뜻에서 그대로 두기로 하였으며, 보충된 사업계획안을 승인하고, 6명의 운영위원을 9명의 준비위원으로 확대키로 하는데 보강된 준비위원은 박우화, 강태희 씨를 선임하고 6인의 위원 중 사정이 있어서 불참하는 사람의 보컬로 이병관씨를 선임하였으며, 총회일자는 1997. 4. 11 11시에 YMCA 강당에서 개최키로 하고 회원 배가 운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4. 1997. 3. 27 참여연대 사무실에서는 숙년회 준비위원회를 열고 창립 총회에 따른 사전준비모임이 있었으며 30일부터 회원 등에게 취지를 선전하기 위하여 파고다공원을 필두로 몇군데의 반응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5. 1997. 3. 30 파고다공원에서 강태희 회원이 숙년회의 취지를 선전하였는바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두시간 동안에 32명의 신규가입회원이 나왔으며 4. 3 2차 활동에서도 두시간 동안에 23명의 가입회원이 나왔고 오후 롯데월드에서도 상당수의 인원이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윤리도덕 회복운동 전개

(1) 목 적

시대상황이 날로 증폭되어가는 윤리도덕결핍증상이 걱정이나 염려를 지나서 두려움마저 앞세워지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책임있는 기성세대의 일원으로 그 도리를 다 해 보고저 전개 하려는 정신 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밑걸음으로 보탬이 되고저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기 간

1997. 4. 1 ~ 5. 31 (2개월간) 결과에 따라 연장하여 년중계속

(3) 지하철 승객에게 경로사상과 장애인 우대사상 함양

(4) 주 관

참여연대 숙년회

(5) 후 원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6) 참가자

중·고등, 대학생

(7) 구 간

청량리 - 서울간 왕복 전동차 내

(8) 준 비

서울특별시와 지하철공사에 섭외는 참여연대에서 맡는다.

(9) 기타사항

2. 효도실천 및 예절교육

(1) 목 적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하여 핵가족을 주창하는 신세대와 인간본연의 기본적인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계층간의 불

협화가 급기야는 폐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현실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관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2) 방 침

① 강사초청 강연 및 실습 ② 자체강사 수용방안

(3) 대 상

참여연대, 숙년회 회원 및 시민

(4) 기 간 - 년중

(5) 장 소

1안 본 회의실

2안 집회장소 임대

(6) 인원 100 - 200명(때에 따라 대강연도 실시)

3. 기관지 발행

(1) 제 호 : 푸른들(가칭)

(2) 규 격 : 타블로이드판

(3) 부 수 : 3,000부

(4) 배부처 : 전회원, 전국 노인회 지부, 정부기관, 각 대학교

4. 거리 정화 운동

(1) 목 적 : 거리의 정화 운동으로 시민에게 쾌적함을 주기 위해서이다.

(2) 방 법 : 참여연대 숙년회 회원은 한사람이 서울시내 육교 하나씩 맡아서 청소를 한다.

(3) 도 구 : 자체 부담

5. 회원 직업 중계실 운영

회원에 한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필요한 곳에 연결시킨다.

6.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사업

7. 기타 본회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

참여연대 熟年會 創立總會

決 議 文

國家民族의 歴史的인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는 이 時點에서 人類共榮의 哲學이 될 수 있는 榮光된 民族의 生命源을 創出하느냐? 아니면 蔓延한 不道德을 그대로 放置하여 未開한 人類! 野蠻人으로 轉落하느냐? 하는 岐路에 서 있음을 自覺할때가 우리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맑고 밝은 來日을 爲해 不正腐敗防止法을 비롯한 사법제자리놓기 모임등 社會全般에 걸친 瀑布처럼 쏟아져 내리는 不條理를 淨化시키고져 정의의 테러리스트로 분연히 떨쳐 일어서서 心血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젊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 卓越한 先進的感覺과 그 勇氣는 우리 國民의 失意와 挫折에서 벅찬 희망이 가득 찬 미래로 분명하게 투명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낡은 思想의 遺物이나 가버린 世代의 標本처럼 安逸한 思考가 아니라 時代的召命意識에서 死生決斷으로 國家民族의 興亡盛衰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莫重한 責任意識과 使命感으로 救國에 執念을 불태워야 한다고 斷言합니다.

이길이 바로 毀撤되어만 가는 尊貴한 人間의 尊嚴을 되찾는 길이며 倫理의 바탕위에 道德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밑거름으로 남은 餘生을 보람있게 犧牲的인 奉仕精神을 最大限으로 傾注하여 우리 참여민주

사회시민연대 젊은이들의 활동을 助力함은 勿論이고 非倫的 危機狀況도 克服해 나가는 倫理實踐의 主體的役割을 통해 슬기로웠던 先人들에게 報恩함과 民族情神文化繼承運動을 통해 倫理道德恢復에 盡力할 것을 活動目標로 하여 熟年會創立總會를 맞이하며 다음과 같이 決議한다.

一. 國家百年大計를 爲한 教育이 入試爲主에서 弘益人間教育으로 轉換할 것을 強力하게 政府當局에 建議한다.

一. 우리 熟年會員은 社會全體의 父母임을 大悟覺醒하여 模範的인 行動을 率先垂範하는 市民이 될것을 決意한다.

一. 우리 熟年會員은 倫理實踐의 主體的役割을 堪當할것을 결의한다.

一. 우리 熟年會員은 國家社會公益의 非理는 어떠한 行爲도 實力으로 排擊할것을 決議한다.

一. 口號에 그치고 있는 老人福祉法을 時急히 施行할 것을 強力하게 促求한다.

1997年 4月 11日

熟年會 創立總會

會員代表 이 순 희